

■ 전남 중학생 22명 美 미주리대 어학연수 가보니...

“여기서는 영어수업이 재미있네요”

“왜 우리나라 영어수업에는 즐거움과 재미가 덜 할까요?” “새롭고 신선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전남지역 중학생들이 남긴 소감이다.



지난 겨울방학 중 미국 미주리대학으로 영어연수를 간 전남지역 중학생들이 참여한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재하기 등 매일 주제를 정해놓고 이에 따른 상황 설정을 한 뒤 다섯명씩 분임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일주일에 세 번은 소풍물·동물원 관람, 농구경기·영화관람, 레크리에이션 활동, 길거리 인터뷰 등 현장 학습을 가졌다. 원어민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피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같은 수업방식은 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몫을 했다.

나주 금성중 3학년 이휘소군은 “미국에서의 강의는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옛날 이야기나 미식축구 등을 주제로 대화식으로 진행돼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미국의 교육방법이 인상 깊고 부러웠다”면서 “특히 수업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고 강조했다.

구례중 3학년 이주홍군은 “타율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공부 방법 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미국의 교육방법이 인상 깊고 부러웠다”면서 “특히 수업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다”고 강조했다.

게임·길거리 인터뷰 등 현장 학습

“우리도 자율·토론방식으로 바꿔야”

은 토론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서 “특히 재미있는 게임과 체험학습 위주의 수업 때문인지 더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적었다.

수업은 ▲과학의 세계 ▲미국 주변 이야기 ▲고등학교 영어 ▲자신의 찬란했던 순간들 ▲특종기사 취

학생들은 한 달여의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각자 소감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 고금중 3학년 이현지양은 “한국에서는 너무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지만, 미국에서의 수업방식

방통대 입학식

광주·전남 신입생 2,796명

광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내 광주·전남지역대학을 비롯,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2천796명을 포함해 신입생 3만4천497명, 2·3학년 편입생 4만1천218명 등 모두 7만1천715명이 입학했다.

올 편·입학생 중에는 명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중술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달 중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심화학습을 위해 또 다시 같은 과 3학년에 편입학했으며, 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이철 전 국회의원과 경제학과 3학년에 편입했다. 영화배우 심은하·지상욱씨 부부도 문화교양학과와 법학과에 나란히 입학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관계자는 “방송대는 높은 교육 만족도로 인해 매년 1만8천여명의 졸업생 가운데 28% 정도가 다시 입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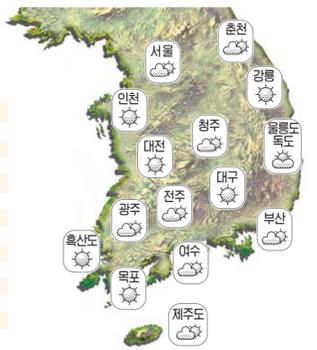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2분 해질 18시 35분 달돋이 16시 39분 달질 05시 30분

봄기운 완연

흐린 뒤 점차 맑아지겠다.

광주	흐린 뒤 맑음	3/15℃
목포	맑음	4/12℃
여수	흐린 뒤 맑음	6/13℃
완도	흐린 뒤 맑음	4/14℃
구례	흐린 뒤 맑음	1/17℃
해남	맑음	2/15℃
장흥	흐린 뒤 맑음	2/16℃
고흥	흐린 뒤 맑음	5/16℃
순천	흐린 뒤 맑음	2/12℃
영광	맑음	3/14℃
진도	흐린 뒤 맑음	2/15℃
전주	흐린 뒤 맑음	0/16℃
남원	맑음	5/11℃
속산도	맑음	5/11℃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	0.5~1.5m	목포 00:30	05:57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1.0~2.0m	13:14	18:36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	0.5~1.5m	여수 08:07	01:3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20:19	14: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14	1/14	3/12	5/9	-2/6	-2/10

전남 초등 교사 연령 불균형

도시 근교 '고참'...섬·농어촌은 '신참'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지역별 연령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교육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목포 등 도시지역과 나주, 담양, 화순 등 광주 근교권 학교에는 나이 든 교사가 많은 반면 신안, 완도 등 섬과 농어촌 지역은 젊은 교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고참' 교사일수록 도시나 광주권 주변에 몰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과 학사운영 등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50세 이상 고령 교사 비율은 담양이 전체 교원 195명 가운데 108명(55.4%)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순 54.2%, 구례 50.0%, 영암, 48.3%, 목포 47.2%, 순천 47.0%, 장성 46.7% 순이었다.

특히 담양은 전남지역 평균 비율인 42.2%보다 최고 13% 포인트 이상 높았다.

반면 교사 경력 10년 안팎인 35세 미만 교사 비율은 완도가 무려 50.7%로 2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 도시지역 인 신안이 44.7%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35세 미만 교사의 평균 비율은 25.8%로, 이를 밀둔 지역은 22개 시·군 중 11곳이나 됐다.

도 교육청도 이 같은 교원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일부 신규교사의 광주 근교권 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형식이 그치고 있다. 올해 신규 교사 250여명 가운데 담양, 장성 등 근교권에 배치된 교사는 10명 안팎이다. 경력과 근무평점 등에 따라 근무 희망지를 우선 배려하는 현 인사제도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민·관 '기초질서지킴이' 시동

U대회 실시 한 달 앞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현지 실사를 한 달 앞두고 민·관합동으로 '기초질서지킴이운동'을 펼친다.

시는 기초질서지킴이 범시민운동 본부는 9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초질서 지킴이 범시민운동본부 회의'를 열고 '질서·친절·정결'의 지역이미지 정착을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회의에는 나무서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해 경찰과 언론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 23명과 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시민교육 및 계도 ▲육의 광고물 정비 ▲거리정숙 ▲공공화장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기초질

서지킴이 6개 과제의 추진상황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다음달 6~9일로 예정된 FISU의 광주 현지실사를 앞두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범시민 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기초질서지킴이 범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질서지킴이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월 폭력 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직된 민·관 협의체다. 박해구 시 자치행정과장은 "기초질서는 짧은 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범시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의식 계도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기초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세계 여성의 날 '가면 행진'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영미)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 도로에서 '세계 여성의 날(8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참가자 500명은 집회를 마친 뒤 그랜드호텔~금남공원~YMCA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영미)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 도로에서 '세계 여성의 날(8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참가자 500명은 집회를 마친 뒤 그랜드호텔~금남공원~YMCA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방사에서 출산까지

고유종 복원사업 5년만에 '결실'

방사원 반달가슴곰의 출산은 오랜 논란이 일었던 고유종 복원사업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야생에서 먹이를 섭취하고 혹독한 동면기를 지내면서 새끼까지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방사원 곰이 적응하고 있다는 확증이라는 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명이다. 당초 환경부가 반달곰을 들여와 지리산에 풀어준 것은 원종(原種)이 지

리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에는 상당수의 반달곰이 살았지만 일제의 해로운 짐승 박멸책과 개밭에 따른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가 급감했다.

그런 가운데 2000년과 2002년 지리산에서 반달곰관리팀 등이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야생 반달곰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그대로 가면 멸종에 이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단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종이 5마리 정도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반달곰 새끼 27마리를 북한 등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했다.

그중 12마리는 적응에 실패해 돌아오거나 폐사했고 현재 암컷 9마리와 수컷 6마리 등 15마리가 살고 있다.

공단은 2004년께 방사한 곰들이 성년인 4~5세가 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번식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 곰들의 몸매 부 착한 발달시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 암컷과 수컷이 만난 사실이 드러나 짝짓기가 이뤄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정/질/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시 전기요금에 90% 이상 절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

월 사용량이 482kWh인 주택에 전기요금에 정부보조금 60% 지원

월 전기요금 15,070원

평균 80% 이상 전기요금 절감

COSMOENG | 지리코스모아벤처

T. 080-7272-7000

국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945-7125~7